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신앙고백		다 함 께
찬 송	 논밭에 오곡백과 찬 590장(통 309장)	다 함 께
기 도		가족대표
감사나눔		다 함 께
성경봉독	 시편 100:1-5	다 함 께
말 씬	 “범사에 감사하라”	인 도 자
감사기도		다 함 께
찬 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다 함 께
주기도문		다 함 께

“감사나눔”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 한 명씩 돌아가며 가족에게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6년 한 해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세요.

말씀본문 시편 100:1-5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 여호와를 찬양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본문해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며‘내 뜻을 다 이룰 것 ’이라고 (행 13:22) 인정해 주셨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견고히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주실 때, “내가 무엇이라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고백은 시편 8편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 8:4)

감사할 줄 아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대상 18:6, 13)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고전 15:10)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좋게 여기고,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4절의 고백처럼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태도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찬양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 데살로니가전서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